세계 창조도시를 가다 〈13〉

日 가나자와 시민이 주도하는 창조문화정책

시민예술촌 내 사토야마의 집. 일본 전통 농가로 외곽에 있던 것을 예술촌을 조성하면서 이전해 시민교류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방치된 건물 음악·연극·미술 무대 리모델링

연중 무휴 24시간 운영…시민 디렉터 위촉도

예술촌 된 방적공장…시민 '문화 놀이터'로

인구 46만2478명의 일본 이치카와 현 중소도시 가나자와는 그 어느 도시보다 시민들을 위한 문화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가나자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 및 문화정책·사업에 있어서 시민들이 수요자라는 소극적인 주체가 아닌 공급자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배경에는 이들 문화시설이 있는 것이다. 이들 문화시설은 공업화시대의 산물이지만 최근 들어 쓸모 없이 방치된 방적공장, 옛 일본 전통가옥 등 과거를 간직한 건물들을 현재·미래에 어울리게 리모델링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연중 무휴·24시간 운영, 시민 디렉터 위촉 등의 제도도 눈여겨볼 만하다.

언제나 문을 여는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시민들이 부담없이 연극·음악·무용·미술 등의 연습·제작·연수·전시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겠다는 것이 이 시민예술촌의 건립 취지다. 다이와마치 1번지에 위치한 방적회사를 1993년 9월 사들인 가나자와 시는 3년간 그 쓰임새에 대한 논의와 그에 맞는 내부 리모델링을 마치고 1996년 10월4일 문을 열었다. 리모델링에 17억엔, 신규시설 설치에 4억7000만엔 등 모두 21억7000만엔이 예산이 투입되면서 10만㎡가 넘는 이 쓸모 없었던 땅은 가나자와의 핵심이 됐다.

지난 2월27일 찾은 가나자와 시민예술촌의 외관은 넓은 잔디 위에 연이어 들어선 붉은 색 벽돌 공장과 옛 일본 전통가옥, 고전적이지만 최근 지어진 건물 등이 조화롭게 배치돼 있었다. 일요일이어서인지 잔디 위에서 아이들과 축구를 하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도 보였다.

시민예술촌은 모두 10개의 시설로 이뤄졌다. 멀티공방(연극·음악 연습 및 워크숍·작품 발표), 드라마공방, 오픈스페이스, 음악공방, 아트 공방 등 5개 공방과 무대예술광장, 가나자와 장인대학교, 사토야마의 집(오래된 농가를 이전한 시민 교류시설), 카페 등이 그것이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음악공방에서는 지역 젊은이로 구성된 밴드가 연습을 하고 있었으며, 드라마 공방에서는 연극배우로 나선 초등학생의 연기를 부모와 시민 디렉터가 지켜보며 지도·조언하고 있었다.

시민예술촌 관계자는 "가나자와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들 시설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초보자라도 시민디렉터의 조언을 받으면서 전문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비용도 저렴하고 오전·오후·야간·심야까지 이용이 가능해 시민들이 불편 없이 예술촌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디렉터가 운영의 핵심

시민디렉터는 각 분야 전문가들로 프로그램 운영을 맡고 있으며 이들이 운영을 맡은 가나자와 창조재단과 시민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시민디렉터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직업을 갖고 있으며, 자신이 맡은 프로그램 시간에만 예술촌을 찾아 시민들과 함께 하고 있다. 모두 30여명으로 매달 5만엔 정도를 지원받고 있는데, 이들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초등학생이나 중·고생 등 지역 청소년 중 유망주들을 발굴·육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극 연출자인 하나코(여·35)씨는 "지역 축제 때 연극을 하는 초등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으며 이 중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 눈에 띠면 부모와 상담을 통해 계속 그러한 재능을 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각 공방은 평상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값비싼 음향·조명시설들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 특이한 점은 시민들의 문화 및 창조의 거점인 예술촌에 인재 육성, 문화재 복원, 장인 기술전승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나자와 직장인대학은 함께 있다는 점이다. 가나자와 장인대학은 석공, 기와, 원예, 대공, 다다미, 건축도구, 판금, 표구 등 분야에 걸쳐 3년 과정으로 운영된다. 지역 공예나 특산물 등을 다루는 전문가 육성기관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시설을 함께 둠으로써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다음달까지 이들 공방의 예약은 모두 끝날 정도로 공방의 인기는 높았다. 시설 운영을 맡고 있는 가나자와 창조재단은 하루를 0~6시, 6~12시, 12~18시, 18~24시로 나눠 시설을 빌려주고 있으며,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각 시설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이용자 통계에 따르면 무대예술광장 4만2612명, 멀티 공방 1만6090명, 드라마 공방 2만8006명, 아트 공방 2만3974명, 사토야마의 집 1만6152명, 사무소동 1만3603명 등 15만 여명의 시민이 찾았다. 시민예술촌의 2011년 예산은 2742만5000엔으로 이 중 61.7% 정도인 1691만3000엔이 사용료 수입이며, 나머지는 시의 예산 지원으로 감당하고 있다.

문화연수시설 시민 '창작의 숲'

창작의 숲은 시민예술촌 똑같은 가나자와 창조재단이 관리하고 있다. 시민예술촌이 '문화활동'에 중점을 둔다면 창작의 숲은 시민의 창작활동에 무게가 실린 곳이다. 판화공방, 염직 공방, 쪽(藍) 공방으로 구성된 창작의 숲은 한 번에 24명이 숙박할 수 있는 합숙시설까지 갖추고 있어 청소년이나 주부들이 많이 찾고 있다.

근대건축물이자 유형문화재인 5개 건축물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애초 민간업체가 관광 목적으로 운영했으나 경영 문제로 문을 닫자 지난 2005년 가나자와 시가 가나자와 미술공예대학 교수 등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창작시설로 다시 문을 열었다. 금박이나 염색 등이 발달한 가나자와지만 판화, 원시적인 염색방법 등은 사라질 위기에 있으며 이를 보존하면서 동시에 교육하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1년 방문객은 1만5000명 정도다. 기술을 가진 예술가들이 임대받아 창작하는 공방에 아마추어인 청소년이나 주부 등을 배치하고 있다.

주변 자연경관이 뛰어나 연수동에는 대학 세미나, 연극모임 합숙 등도 열리며 산책을 위해 자주 찾는 일반인들을 위해 별도의 코스도 마련해두고 있다.

창작의 숲 관리를 맡고 있는 호리 유이치(41)씨는 "일반시민의 풀뿌리 문화의 육성을 위해 만든 시설로 공예창조도시인 가나자와를 특징짓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며 "내용은 전문적이지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시민창작의 숲의 염직공방 내부. 전문인들이 임대해 사용하고 틈틈이 청소년이나 주부들을 교육하고 있다.

시민예술촌 내 가나자와 장인대학 전경. 3년 과정의 전문가 육성과정으로 시민 전용 문화시설인 예술촌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